

설 교

본질과 비본질

<요한일서 4장 18~19절>

이상덕 목사 (미요시교회)



코로나 시대가 2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다른 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모임 횟수를 줄이고 재정을 줄여야 했습니다. 비자발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어떤 교회들은 존립 자체가 험겨워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약 25년 전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디트리히 본회퍼의 <옥중서신>을 최근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치하의 형무소에서 쓰여진 그의 글의 깊이가, 코로나 시대에 약간 불편함과 외로움을 느꼈던 저에게도 와 닿았습니다. 본회퍼는 <옥중서신>의 44년 4월 30일의 편지에서 “종교가 기독교의 의복에 지나지 않고 그 의복도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면 비종교적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네. 비종교적 세상에서 교회, 교구, 설교, 예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썼습니다.

위에 인용된 글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일시중지, 단축예배, 비대면 예배, 성만찬 연기, 예배 후 식사 생략, 기도회 중지, 소그룹 모임 중지 등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면예배 시간에 줄곧 마스크를 써야 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등, 익숙한 신앙적 루틴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우리는 신앙의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체크하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옥중서신>의 44년 5월에 쓰여진 다음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요 몇 해 동안 자기 보전이 목적 그 자체라는 듯이 그것을 위해서만 투쟁해온 우리의 교회는 인간들과 세계를 화해시키고 구원하는 말씀의 담당자가 되지 못했고, 그 바람에 과거의 말씀들은 힘을 잃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단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인 됨은 다음 두 가지, 곧 기도하기와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로운 일 수행하기에만 그 본질이 있단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활동은 방향을 잃고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데(고전4:20), 우리는 맛 않은 소금(마5:13)처럼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죽하니라(눅10:42).” 우리는 이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져도 될 것 같습니다. 본질에 충실히 됩니다. 본회퍼가 제시한 그리스도인다움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과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4:19).”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의 경계는 없습니다(눅10:36). 물론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를.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신 분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 본회퍼는 44년 8월 21일 편지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달려 있는 것 같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기대하고 그분께 간절히 구해도 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네.’라고 썼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요일4:18). 그래서 우리도 가슴을 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10월, 마르틴 루터를 기억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당시의 교회가 비본질에 사로잡힌 채 본래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에 대항하며 본질을 외쳤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의 계승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곁의 포장지가 아니라 안의 내용물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는 비본질적인 부분은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예배 형식이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 짧아져도 괜찮습니다. 식사 시간이 당분간 생략되어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도 괜찮습니다. 예배자료를 보면서 홀로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현금액수를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기도하며 옳은 일을 행하면 됩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초대하십니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在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한국선교협력교단 각총회 방문

3년만에 참석해서 인사, 협력을 확인

9월13일에 개최된 예장 대신 총회를 시작으로 한국의 각 협력교단들의 총회가 개최되어 나카에 요이치 총회장과 양영우 부총회장, 김병호 총간사가 참석하여 인사를 하였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년 동안 참석치 못했는데, 금번에 3년 만에 참석하여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사를 나누고 협력을 다짐하였다.

방문한 교단은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등이다 대신 총회를 제외한 대부분 교단의 총회가 9월19일~23일까지 개최되고 지방으로 분산되어 개최되는 관계로, 예장 합동 총회에는 양영우 부총회장이 참석하여 총회장 인사문을 대독하기도 하였다.



관서지방회

채플 콘서트를 개최

다채한 프로그램, 70명이 모여 큰 은혜

관서지방회 교육부 주최 채플 콘서트가 7월 24일 오후 오사카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교회 학교 학생들 20명을 합쳐 70명 가까이 모여 유튜브 동시 라이브 방송이 있었다.

「음악의 오쿠리모노~새로운 노래를 주를 향해 노래해라」라고 제목의 이 콘서트는, 김유향(파이프 오르간), 김명미(소프라노), 오다미(피아노)의 연주자에 의한 최고의 연주가 박진감 있게 펼쳐졌다.

또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와 함께, 「마론 아줌마」의 그림책이 큰 화면에서 비추어져, 즐거운 낭독의 시간과,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루소의 꿈>에 의한 변주곡에서 유래되었다는 찬송가 역사도 소개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었다.

게다가 이 멜로디를 바탕으로 4교회 학교(大阪、布施、堺、京都)의 학생에 의한 창작 찬양도 동영상으로 방송되어 교회학교 학생들은 콘서트 신도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코로나과 중에서도 이런 행사와 교제, 라이브 방송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보고 : 관서지방회 교육부 니오 게이코 전도사)



죽여 여성 설회

3년만에 일일연수회 개최

김형진목사 강사로 두 차례 걸쳐 강연

지난 9월8일(목)에 중부지방 교회여성 연합회 일일연수회가 나고야교회에서 개최되었다. 3년만에 개최가 되어 나가노에서부터 도요하시까지 모두 6 교회 목회자와 신도(총27명)가 모였다.

지쿠마비전전도소 김형진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성경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강연을 들었다. 1부에서는 ‘유리천장’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사회에서의 여성의 현실(임금 격차나 국회의원 비율), 또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자녀 양육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간증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점심 후 2부에서는 ‘이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땅에서 아주 여성으로 살아 오신 믿음의 선배님들 모습을 소설 ‘파친코’와 관련시키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삶, 하나님의 그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말씀을 통해 참가자들은 고된 삶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

2020년에 일본에 오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알지 못했던 김형진 목사님과의 만남, 3년만의 개최, ‘현재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더 여성 차별이 심하지만 과거의 한국 교회는 달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둘러싼 맛있는 식탁… 기쁘고 즐겁고 맛있는 연수회였다. 전국여성회 이시바시 마리에 총무의 말을 빌려서 이 보고를 마친다. ‘남자도 들어야 할 말씀이다.

(보고 : 중부 여성회 이정자)



<対馬めぐみ伝道所 住所変更>

〒817-0323 長崎県対馬市美対馬町大船越539-4

電話/FAX 0920-54-4500

宣教委員会主催異端セミナー

「統一教会と政治との関係から 見える宣教課題」



講師：卓 志雄 司祭
日本聖公會管区事務所宣教主事
日本聖公會東京教區
インマヌエル新生教会牧師

昨今の統一教会と政治との関係から
私たちが学ぶべきことと宣教の課題を
共に考えるために異端セミナーを開催
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皆さん、積極的にご参加ください。

日時：2022年 10月 28 日（金）19時～21時30分

会場：オンラインセミナー(ZOOM)※言語は日本語!

※プログラムは講演と質疑応答となります。

対象：教役者と信徒

締切：10月 26 日（水）まで

申込：書記 林明基牧師 (kyotoch@hotmail.co.jp)

お問合せ：委員長 趙永哲牧師 (080-5318-9058)

※申請者のメールに講演の資料とZOOMリンクを送付します。

『재일에서 이어받은 신앙 계승의 발자취』

—최영모장로로부터 최정강목사에게—



하카타교회 윤박선목사

2016년 6월 최정강목사는 명예목사 추대식 인사에서 “나는 최영모장로에게서 목회에 실패한 목사라고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 있다. 처음으로 최영모장로님에 대해 언급한 말씀이었다. 직접 만난 뒤 것은 교회 납골당에 있는 큰 향아리였습니다. “크지요?” “뼈를 전부 담아 넣어라”고 했습니다. 라고 최정강목사가 말씀하셨다. 최영모장로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따뜻하시고 조용하시다’라는 표현을 자주 들었다. ‘유머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이번에 ‘제일동포의 신앙계승의 발자취’를 주제로 기사를 쓰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서남지방회에도 역사편찬위원회가 있어 활동재원은 G.Davis 선교사님의 선교금을 모은 것이다. 최정강목사가 제40회 정기총회까지 지방회록 등의 자료를 제본하고 또 제72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현재 내가 그 일을 이어 받아 제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신앙 앞에서 최영모장로의 ‘살아 있는 신앙’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일이 또한 감사하다.

최영모장로는 1916년 경상남도에서 태어나셨다. 1936년에 기독교(한국장로회)에 입신하시고 대마도로 건너가셨다. 거기서 김봉규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후, 후쿠오카로 이주, 1943년 6월에 장로 안수를 받았다. 후쿠오카 교회는 당시 요시즈카에 있었고, 많은 한국 동포들이 사는 하나의 공동체였다. 수요기도회 등 교회에 가면 다른 어르신들과 몇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누시고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

“길 앞에 바로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4명의 남매는 눈이 빠지게 부모님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차남 최백운집사가 말씀하셨다. 그것은 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나도 매주 기도회에서 돌아오는 어머니를 동생과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중에는 ‘마차 지기’라고 하는 무거운 짐 등을 말에 실어서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전후에는 ‘구두를 만들어 판매하고 수선하는 일’을 하셨다. 모친 남주야권사는, 사람의 발만 보고 사이즈를 딱 맞힐 수 있는 정도의 재능이 있어서, 교회 목사님이 심방 오실 때마다, 새 구두를 신고 귀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당시는 가난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것이다. 당시 소학생의 최정강 목사는 란도셀이나 손에 드는 주머니를 가죽으로 만들어 준 것을 “그 때는 무거웠고,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분에 넘치는 생각이었다”라고 회상하였다.

이윽고 후쿠오카에 두 번째 교회, 후쿠오카 중앙교회가 설립된다. 그것은 총회 90년 기념지에 실려 있는 대로지만, 후쿠오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최영모장로가 자택에 초대해 모인 것이 시작이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되어 갔다.

최영모장로와 남주야권사는 청년들이나 유학생들에게 “쌀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하며 쌀을 나눠주었다. 최백운집사가 “근처 쌀집의 경영을 도왔다.”고 할 만큼 헌신과 봉사를 하신 것이다. 예배 후에는 “맛있는 밥이 가득 있어서 배 불리 먹고 가세요.”라고 하며 다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또, 「꼬리가 되지 말아라. 머리가 되라」라는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한 헌신을 통하여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최정강목사는 1942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다. 큐슈대학을 졸업한 후 시라기금속을 경영하였지만 1972년 세이난학원대학 신학부에서 공부하였다. 오사카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로 섬기고, 1982년부터 쿠마모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1991년에 후쿠오카 중앙교회에서 시무를 했고, 2004년에는 하카타교회를 개척하여 위임하였다. 2012년에 은퇴, 2016년에 명예목사로 추대되었고, 40년간이나 목사로서 신앙을 지켜온 것이다.

이 기사는 ‘재일의 신앙계승’을 주제로 최정강목사에 대해 게재하고 싶다는 총간사의 제안도 있었지만, ‘세삼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최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기회에는 최창화목사와 함께 김희로씨가 수감되어 있던 구마모토 형무소에 여러 번 방문한 이야기나, 얼마전에 소천하신 김신환목사와의 이야기 등 그 밖에도 간증의 대부분이 서남 지방회에 대한 중요한 역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누군가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저는 최정강목사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목회 속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20년전에 결혼식 주례를 해 주셨고, 총회장을 맡고 있을 때에는 총회 신학생으로서 도쿄 조후교회에서, 또한 이상훈 목사의 도움으로 여러 번 집회에서 만났다. 그때마다 「신학생은 열심히 하세요」라고 기도해 주셨다.

목사가 되어 후쿠오카에 왔을 때에는,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잘 공부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메일을 받고 매우 고마워서 그 내용을 보존을 하고 있다. 하카타 교회에 초청 이야기를 받았을 때도, 「하카타교회에 와서 차분히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격려도 받았다. 이런 반쪽짜리 인간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최정강목사의 격려 때문이다.

누구든지 <신앙을 계승하자>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 뿐이다. 다만 우리가 매일을 되풀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결과에 <현신의 의미>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앞서서 <살아있는 신학>이 있어 지금 이렇게 의미를 잡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서남지방회에는 최영모장로를 포함한 신앙의 선배들과 끊을 수 없는 복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희망은 미래에 있지만 선지자들의 걸어온 과거에도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 복음의 세계가 여기에 강하게 일어나는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과거 · 현재 · 미래의 행보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11회 WCC카를스루에 총회 참관기>(1)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세계교회협의회 제11회 총회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남부의 도시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개최되었다.

1968년 제4회 옵살라 총회 이후 54년 만에 유럽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의 352가맹교단 중, 295교단에서 4,000여명이 참가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형제 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함과 동시에 세계교회가 안고 있는 긴급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에큐메니즘(교회 일치 운동)의 향후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팬데믹로 인하여 1년 연기되어 개최된 제11회 총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WCC 총회의 주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이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 선진국과 도상국의 격차 문제와, 경제/사회적 불평등, 인종 갈등 등 산적한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적대와 분단이 가속되고 있는 세계의 모든 갈등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봄 된 교회는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총회 전체의 초점이 모아졌다.

제11회 총회 개최 도시인 카를스루에는 독일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속한다. 바덴 지방은 라인강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 스위스와의 국경에 접하고 있으며, 독일(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는 1870년에 전쟁이 일어났다. 양국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황 속에서 화해를 위해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덴지역의 교회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로부터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키고 교회를 재건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덴지역 교회들의 에큐메니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화해와 우정이었다. 제11회 총회의 호스트를 맡은 바덴지역 개신교 교회(Evangelical Church in Baden)의 대표인 하이케 스프링하트 주교(Bishop)는 “이 바덴 땅에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글로벌 에큐메니칼 커뮤니티로서의 연대를 깊게 하며, 함께 화해를 통한 희망의 움직임(movement)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감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올해 2월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 개최되었다. WCC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표단을 카를스루에에 초청함으로서 양국 정교회 대표가 얼굴을 맞대고, 일단 ‘대화 자리에 앉는’ 형태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양측의 본격적인 대화는 실현되지 못했다. 일부 가맹교단에서는 러시아 정교회의 WCC 회원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WCC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의 장>으로서 존재한다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러시아 정교회와의 대화를 이어간다는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9일간의 총회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대>를 가장 선명한 형태로 체험할 수 있었던

장소는 회의장 중앙, 야외 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기도 텐트> (Prayer tent)였다. 신앙의 전통과 고백이 다른 350여개의 회원교단으로 구성된 WCC 총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예배>가 아닌 <기도회>(prayer meeting)를 함께 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WCC의 역사에서 이러한 <기도회>는 분리된 교회(교단)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신앙적인 공통점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제11회 총회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서로의 차이(다름)를 극복하는 체험을 공유했다.

기도회와 찬양을 뒷받침하는 찬양대(콰이어)는 현지 독일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참석자로 구성되었다. 같은 인종이 모여서 서지 않고 피부색이 다른 대원들이 나란히 서서 어울려 찬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 독일에서 활동하는 합주단도 참석해 힘찬 연주로 기도회 찬양을 뒷받침했다.

총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4개국어였으나 기도회에서는 그 외의 여러 나라와 지역 언어로 찬송과 기도가 이루어졌다. 동서남북 원주민들의 색다른 찬양과 노래 그리고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기한 개방감도 맛볼 수 있었다.

예전(礼典)의 형태나 음악적 감각이 다른 리더들은 하나님의 기도회 안에서 번갈아가며 기도와 찬양을 이끌었다. 이들은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알렐루야’와 같은 친숙한 찬송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전통 찬송과 이집트 콥트교회의 찬송, 또 하와이 원주민의 찬송 등을 소개하며 회중을 하나의 목소리로 이끌었다. 경쾌한 리듬이 특징인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찬양을 부를 때에는 회중 전체가 춤을 추며 찬양했다. 접해보지 못한 선율과 말해 본 적 없는 언어이긴 했지만 기도 텐트에 모인 모두가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풍성한 영성을 느끼는 것 같았다. 총회 기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두 번씩 가진 기도회는 모두 독특함으로 가득했고, 그 하나하나가 <공생의 천막>을 펼치는 작은 모험 같았다. (다음 호에 계속)

(報告 : WCC總会參加者一同)

